

韓方保健 指導業務 付與의 當爲性

慶熙大學校 助教授 朴 贊 國

韓醫學은 우리 民族과 榮枯盛衰를 같이 하여온 民族醫學으로 멀리는 百濟時代로 부터 최근세까지 國家의 모든 醫療行政 및 診療 救療를 담당하여 왔다. 즉 高麗時代에는 이미 당시 醫學에 依한 教育施設에서부터 中央 및 地方의 醫療制度가 完備되었으며 특히 高麗祖의 東西大悲院이나 濟危寶, 惠民局 等에서는 貧民의 診療 救療를 담당하여 왔다. 高麗의 이러한 政策은 近世朝鮮에 까지 그대로 繼承되어 施行되었다.

그러나 最近世에 이르러 日帝가 침략의 수단으로 강요하여 만행된 甲午改革에 이르러 韓醫學은 모든 醫療制度에서 除外되고 대신 洋醫師가 모든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日帝가 祖國을 강점하고 있을 때까지는 日帝의 民族醫學 抹殺政策에 依하여 겨우 명맥만을 保存하다가 大韓民國 政府 수립후 1951년에 이르러 韓醫師制度가 새로 생기고 國家保健指導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韓醫界의 시련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5. 16 이후 근시안적인 政見을 가진 革命政府는 다시 民族醫學인 韓醫學을 醫學協會側과 모의하여 保健指導任務에서 除外시켰다.

그러나 80년이후 각계 각층에서 政治的 民主化와 함께 民族의 主體性確立 民族文化의 暢達을 부르짖는 기운에 힘입어 지난 1986년에 保社部에서 韓方保健指導에 對한 立法을 豫告한 바 있었다.

韓方保健指導業務란 公중보건 의뢰기관 즉 전국의 보건소 조직에 韓醫師를 배치하여 예방의학적 기능을 발휘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한의학적 攝生 營養法을 통해 보건 영양 모자보건 체위향상 질병 예방능력을 배양하고 한방진료를 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도모 증진 시키는 것이다.

현행 공중보건의 제도에 관한 사항은 1980년에 제정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그 당시까지 군의관으로 군대에서만 사용되던 고급 의료인력을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무의촌에 근무하게 하여 의료시혜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대한의학협회는 韓醫師의 保健指導參與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의사의 보건지도 참여에 관한 入法에 反對請願을 國會에 제출한 바 있다.

韓方界는 이 보건지도 이외에도 軍醫官에 任命될 수 없으며 한방을 연구하는 國立研究所 國立病院등도 設置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또 나아가 民族文化를 繼承發展시키기 위하여 國民學校부터 東洋畫나 國樂을 이미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大學은 이미 全國에 8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國定教科書는 물론 中高等學校의 自然이나 生物等의 교과서에 韓方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도 없는 형편이다.

그러면 韓方이 실제로 現在 大韓民國의 농어촌 보건지도에 절실히 필요한 실용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이는 아직 韓方을 실제로 保健指導에 參與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무의촌의 醫療奉仕나 統計資料를 보면 韓方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1986년에 저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도시영세민과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 韓方治療를 받을 수 있다면 83.7%가 保健所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수십차의 학생의료봉사에서도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도는 충분히 韓方 實用價値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또한 韓醫科大學의 6년간 教育機關中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이의 臨床活用을 修學할 뿐만아니라 西洋醫學의 解剖學, 生理學, 葯理學, 生化學, 微生物學, 豫防醫學, 法醫學 等 공중보건의로써 필요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

공중보건에서 防疫과 豫防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公衆保健의 任務의 전부는 아니고 이는 公衆保健醫 任務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질병 발생율을 보면

- 1>呼吸器疾患 (24. 1%)
- 2>消化器疾患 (20. 1%)
- 3>感染性 및 寄生虫疾患 (19. 7%)
- 4>神經界 및 感覺器疾患 (8. 5%)
- 5>皮下組織의 疾患 (7. 8%)

의 순서로 되어있다 (농촌경제연구원 1984년 통계자료) 이 질병 통계자료는 公衆保健醫의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保健所의 役割을 증대시켜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 주고 있다. 農漁村醫療 改善을 目的으로 政策的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는 保健支所의 이용율이 5~6%에 불과하다고 하면 (농촌경제연구원 1984) 이는 국가재정과 자원의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소의 기피현상은 아마도 한방이 참여하므로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 한다. 그러므로 保社當局은 公衆保健醫의 임무를 단순히 防疫이나 豫防에서 그치는 소극적 진료태세에서 慢性病, 成人病등의 치료와 예방은 물론 세균감염에 앞서 섭생과 약물의 복용으로 건강한 身體를 維持케하는 보다 根本的인 豫防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주장에 대하여 西洋醫學을 專功한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즉 韓方은 非科學的이고 체계가 없으며 세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건지도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진정 무엇이 과학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일이다. 실험실에서 약품을 만들었다 하여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제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약품은 세균을 죽이는 데에 일시적으로 빠른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인체의 正氣損傷도 똑 같이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마음대로 항생물질을 복용할 수 있을 뿐, 이웃 일본만 하여도 항생제의 사용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하고 미국은 이미 10분의 1도 채 안되는 현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韓方에 세균의 概念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韓醫學에는 細菌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러나 세균만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인자는 아니다. 실제로 실험에 의하더라도 똑같은 세균을 접종시켰다 하여 반드시 모두 질병이 감염된다 할 수는 없다.

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누구나 추운 날에 옷을 얇게 입고 밥을 굶고 추운 데에 오래 있게 되면 감기에 걸리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세균이 몸속에 침입하여 疾病이 발생 한것이 아니고 신체를 차게하여 체내에 병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것이 바로 질병의 직접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이 세균을 번식하게 할 수 있는 原因을 六淫 (風, 寒, 暑, 濕, 燥, 火,)라 하여 이 六氣 (風, 寒, 暑, 濕, 燥, 火)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여 질병을 치료하는데 주력 해왔다.

지금 六淫이니 六氣니 하는 말들이 아마도 낯설지 몰라도 사실 이 六氣 六淫이

곧 체내의 濕度, 溫度, 氣運의 強弱을 表示하는 것으로 매우 科學的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부엌에 새균이 살 수 없는 환경 즉 통풍 방습 청결등을 유지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파리나 기타 다른 벌레들이 많다 하여 청결하게 할 생각은 않고 살충제를 마구 살포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되는 것과 꼭 같은 이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西洋醫師의 입장에서 보면 학문적 체계가 다르므로 韓方이 보건의도 업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리어 韓醫學에 몸 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西洋醫藥이야말로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시적효과를 위한 진통제, 호르몬제의 남용은 당장은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서서히 조금씩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이러한 약물들은 생체의 생명력을 점차 저하시키므로 당장은 자신들의 몸에서부터 앞으로는 우리 후손들에게 까지 좋지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구미 각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일찌기 간파하여 전통의학의 이론과 自然産의 藥物에 지대한 관심과 연구를 하고 있다. 醫學의 세계적 조류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醫學界는 연구는 커녕 연구발전 시키겠다는 韓醫界의 의지를 말살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상기의 여러가지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韓醫科大學은 엄연히 국가에서 인정하는 6년제 대학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너무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법이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평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모순의 개선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단지 어느 단체의 힘에 밀리거나 기성제도에 얽매어 새로운 변혁을 꺼리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본다.

끝으로 法曹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醫學界에까지 뿌리깊게 남아있는 日帝의 殘滓를 하루 속히 제거하여 우리民族의 슬기와 지혜가 담겨있는 傳統醫學이 제도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민주화의 열기로 새로운 정부가 새 헌법에 의하여 탄생한 제6공화국에서는 우리 韓醫界도 떳떳하게 民族文化 暢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